

'2010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열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 12개 우수 건설현장 경합
SK건설(주)-삼성엔지니어링(주), 각각 토목·건축부문 대상 영예

취재 사진 | 연습기 기자



우수한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건설현장들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2010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 주요 건설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우수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우수사례를 여타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4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우수사례에 대한 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접수된 34개 사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12개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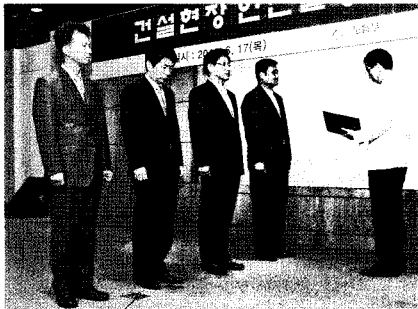
본선에서는 건축부문 6개 사례와 토목부문 6개 사례의 발표가 있었으며, 치열한 경합 결과

토목부문에서는 '창! 창! 창! 창속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SK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1교 건설공사 현장이, 건축부문에서는 'hi-pass 안전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삼성엔지니어링(주)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 현장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SK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1교 건설공사 현장은 안전활동을 펼침에 있어 시스템, 기술, 감성이 체계적인 조화를 이룬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주)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 현장은 협력회사·공사팀·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 안전기법을 도입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해 애쓴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음을 느끼게 했다. 먼저 시공사들이 전반적인 안전활동을 펼침에 있어 협력사들의 참여를 크게 늘렸다. 이로 인해 협력사의 안전관리능력은 물론 현장 전반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됐다. 또 감성안전이 도입단계를 지나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케 했다. 대회에 참여한 모든 건설사들이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감성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아울러 각 현장들이 안전활동을 단순히 현장 내에서 펼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활동으로 그 활동 폭을 넓히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간 우리 기업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한 부분들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걸 전망케 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2010 우수강사 경진대회' 개최

건설안전본부 김남철 차장 대상 영예

취재, 사진 | 임동희 기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안전교육 강사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백일천)는 지난 7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서울지회 교육장에서 '2010년 우수강사 경진대회 본선'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우수한 안전교육 강사를 발굴하는 한편 한발 앞선 강의 기법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개최한 행사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심사에는 황원기 다이내믹컨설팅 대표, 정상근 정HR교육연구소 소장, 안영진 아이플러스아카데미 원장 등이 나섰으며,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예선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산하 전국 25개 지회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5월 4일부터 실시됐으며, 한 달여의 치열한 경합을 뚫고 권역별 예선 1·2위를 차지한 6명이 본선에 올랐다.

개회사에서 백일천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협회의 존립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와 사업주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우수강사 경진대회를 통해 제시된 양질의 콘텐츠를 일선 산업현장에 잘 적용시켜 산업재해감소에 이바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 3부로 나뉘어 4시간여에 걸쳐 펼쳐진 이번 경진대회 본선 결과, 영예의 대상은 '우리현장에는 어떤 위험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건설안전본부 김남철 차장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사고 사례'를 발표한 포항지회 김성진 차장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유해물질 취급안전'을 발표한 인천지회 김종만 과장과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자세'를 발표한 안산지회 박이병 차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밖에 '행복을 찾아서'를 발표한 대구지회 박명훈 차장과 '지게차 안전작업'을 발표한 충북지회 안재호 과장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황원기 다이내믹컨설팅 대표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중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함께 웃음을 주는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 참가자들은 모두 청중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멋진 강의를 했다"고 평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우수강사 경진대회는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를 하는 협회 직원들의 역량을 한 층 높인 것은 물론 새로운 강의기법 개발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